



일본 금융당국, 예금보험요율 인하 추진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금융당국은 1971년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예금보험요율 인하를 위한 금융업계와의 협의를 9월부터 추진할 예정임.
 - 현재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파산에 대비해 예금액의 0.084%를 적립하고 있는데, 보험요율 인하가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0.048%까지 낮춘다는 계획임.
 - 일본 금융당국이 예금보험요율 인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오랫동안 기금 적립금의 누적손실에 시달려 온 예금보험기구가 지난해 누적손실을 완전히 해소하였으며, 2011년에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.
 - 한편, 일각에서는 일본 우정그룹 산하 우체국의 예금한도액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금융업계를 달래려는 일본 금융업계의 내부사정이 예금보험요율 인하의 배경으로 봄.
- 예금보험기구는 1990년대 금융회사의 파산 또는 부실처리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고갈되자, 1996년에 예금보험요율을 종전의 0.012%에서 7배인 0.084%까지 인상함.
 - 이후 파산 금융회사들이 줄어들고, 예금보험기구의 재정상황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2002년 4조 엔에 달하던 예금보험기구 적립금의 누적결손금이 2010년 3,000억 엔으로 감소한 가운데, 2011년에는 큰 폭의 흑자로 동 적립금 누계 액이 3,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현재 일본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연간 부담액은 3개 대형은행의 최대 보험료 800억 엔을 포함하여 총 6,400억 엔인데, 보험요율 인하가 적용될 경우 금융계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임.
 - 예금보험료 인하는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간의 협이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금보험기구 운영위원회에서 금융청 장관과 재무성 장관이 최종 확정할 예정임.

(일본경제신문 8/16, 산케이신문 8/17, 뉴스 종합)